每日新聞

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순항.첨산산업 업계 투자 줄이어

매일신문 배포 2020-08-26 16:16:39 | 수정 2020-08-26 17:21:42 |

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 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곳과 포항시가 투자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 있다. 포항시 제공

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신규 기업들이 연이어 투자를 희망하고 나서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될지 주목된다.

포항시는 26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 건립 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 8곳과 투자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 이들 기업은 2024년까지 3만6천848㎡ 부지에 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 주요 업종은 바이오·IT·첨단신소재 분야 등이다.

특히 이날 MOU를 체결한 기업 가운데 7곳이 포항에서 출발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알려졌다. 공장 등 추가시설이 필요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포항에 재투자를 결정한 것이다.

포스텍에서 성장한 ㈜에이엔폴리·㈜원소프트다임·㈜바이오컴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기틀을 다진 ㈜이너센서·㈜이브이에스·㈜휴비즈아이씨티, 국민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태동한 ㈜아이언박스 등이다. 나머지 1곳인 ㈜화이바이오메드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.

이강덕 포항시장은 "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는 포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"라며 "기업 투자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북구 흥해읍 대련·이인리 일대에 147만8천998㎡ 규모로 건설되는 그린에너지·바이오·부품 및 소재·R&D 특화단지이다. 2018년 착공해 2022년 완공 예정이다.

신동우 기자 sdw@imaeil.com